

여성추상은 불가능한 명제인가...이 질문에 응답하는 세 명의 작가

July 21, 2021 | 김흥희 평론가

Page 1 of 1

김흥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⑥ '향상의 복식' 양주혜 vs 흥희예 vs 박미나

여성추상은 불가능한 명제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세 명의 작가

■ 추상미술에서의 여성적 영역

향상의 복식은 7자음은 양주혜(1955), 흥희예(1959), 박미나(1973)를 초대했다. 양주혜는 색채과 바코드를, 흥희예는 컴퓨터 픽셀 이미지, 박미나는 달빛꽃 노트와 각기 고유한 추상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추상미술은 20세기 부재적 모더니즘과 형식주의의 종로서 남성성으로 주류화했던 반면, 형식보다 주제, 재해석이나 사상의 다양성은 여성적 영역으로 타자화하는 미학적 층위가 되었다. 초창기 페미니즘 미술운동은 추상 내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여성미술을 광학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페미니즘 미술운동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그것이 모더니즘에 대한 아무것도 불편한 반기 않았다”는 루리드와 더단언이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양적, 캔버스 대면을 요약한다. 그렇다면 추상미술은 과연 남성의 전유물인가? 추상미술에서의 여성적 영역을 논할 수는 없을까? 여성추상, 페미니즘추상은 불가능한 명제인가? 이번 호에는 이 3인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이분적 틀에 대한 질문리를 찾아볼라 한다.

■ 양주혜의 색채 추상

양주혜는 색채를 중점 다루어 회화뿐 아니라 조각, 설치, 공예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탐험하는 자기완벽형 작가이다. 형, 선, 면의 변형과, 중첩과 겹침으로 구현되는 반복 구조 작품세계는 복합적 층위의 양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평각지, 또는 양평각지 학은 이런 반복미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단, 유양등, 손수건을 갈고하는 부채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추상의 가능성과 색채라는 정지적 미학의 유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양주혜 추상화의 양면성은 우선 그림자와 색 사이의 미학적 긴장관계에 비롯된다. “나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ed. 그림을 쓰고 있다”는 자신의 말처럼, 그에게 색채는 굴러올려 놓은 원고지, 양평각지다. 양평각지, 즉 거울과 미술로 이루어진 양평각지, 또는 양평각지 학은 이런 반복미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단, 유양등, 손수건을 갈고하는 부채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추상의 가능성과 색채라는 정지적 미학의 유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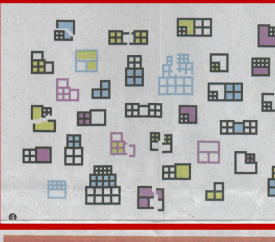
양주혜는 1979년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컴퓨터 작업을 발표하면서 왔던 전기적 태풍이다. 픽셀을 기본 단위로 하는 자신의 컴퓨터 이미지 작업으로 손수기, 화공, 번짐이라는 과정에서 유기적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미학적 방향이다. 지평선의 위와 비평행선을 끌어내는 일련의 색상적 언어가 흥희예의 작업을 특징짓는다. 양평각지 학은 이런 반복미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단, 유양등, 손수건을 갈고하는 부채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추상의 가능성과 색채라는 정지적 미학의 유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양주혜는 1979년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컴퓨터 작업을 발표하면서 왔던 전기적 태풍이다. 픽셀을 기본 단위로 하는 자신의 컴퓨터 이미지 작업으로 손수기, 화공, 번짐이라는 과정에서 유기적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미학적 방향이다. 지평선의 위와 비평행선을 끌어내는 일련의 색상적 언어가 흥희예의 작업을 특징짓는다. 양평각지 학은 이런 반복미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단, 유양등, 손수건을 갈고하는 부채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추상의 가능성과 색채라는 정지적 미학의 유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색채과 바코드의 변주 양주혜
“나는 그림을 쓰고 있다”
장·선·면의 반복적 중첩으로 손수기, 도자기, 유양, 번짐 등 다양한 소재로 실험
픽셀을 생명력을 부여 흥희예
공예적·노동집약적 패턴화 작업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로 이트루시 의미
양평각지 학은 이런 반복미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단, 유양등, 손수건을 갈고하는 부채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추상의 가능성과 색채라는 정지적 미학의 유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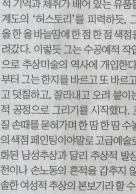


양주혜의 ‘향상의 복식’은 7자음의 색채와 바코드를 변주하여 반복적 중첩을 이루는 추상적 이미지이다. 손수기, 도자기, 유양, 번짐 등 다양한 소재로 실험한 양주혜의 작품은 ‘향상의 복식’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추상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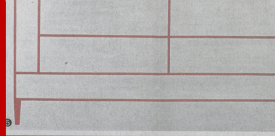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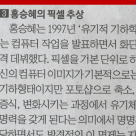
흥희예의 ‘향상의 복식’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박미나의 ‘향상의 복식’은 달빛꽃 노트와 각기 고유한 추상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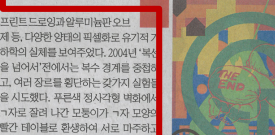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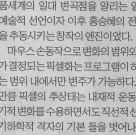
양주혜의 ‘향상의 복식’은 7자음의 색채와 바코드를 변주하여 반복적 중첩을 이루는 추상적 이미지이다. 손수기, 도자기, 유양, 번짐 등 다양한 소재로 실험한 양주혜의 작품은 ‘향상의 복식’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추상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흥희예의 ‘향상의 복식’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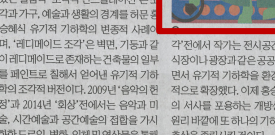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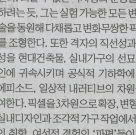
박미나의 ‘향상의 복식’은 달빛꽃 노트와 각기 고유한 추상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양주혜의 ‘향상의 복식’은 7자음의 색채와 바코드를 변주하여 반복적 중첩을 이루는 추상적 이미지이다. 손수기, 도자기, 유양, 번짐 등 다양한 소재로 실험한 양주혜의 작품은 ‘향상의 복식’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추상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흥희예의 ‘향상의 복식’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박미나의 ‘향상의 복식’은 달빛꽃 노트와 각기 고유한 추상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양주혜의 ‘향상의 복식’은 7자음의 색채와 바코드를 변주하여 반복적 중첩을 이루는 추상적 이미지이다. 손수기, 도자기, 유양, 번짐 등 다양한 소재로 실험한 양주혜의 작품은 ‘향상의 복식’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추상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흥희예의 ‘향상의 복식’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픽셀 이미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남성중성적 추상양식적 소위원형적 여성 테크놀로지를 이트루시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김흥희는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이다. 서울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로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술사학』, 『미술사학의 방법』 등이 있다.